

# 한국어 상급 교재에서의 ‘-느-’ 결합 구성에 대하여

權容環  
神田外語大学

## 1. 서론

한국어의 동사와 형용사는 용언으로 분류되고 서술어로 기능하는 등 여러 가지 비슷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동사와 형용사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동사와 형용사를 구분하는 기준 중 하나가 선어말어미 ‘-느-’의 결합 여부이다.<sup>1)</sup> 즉 동사의 경우 ‘-느-’가 결합되거나 형용사의 경우는 ‘-느-’가 결합되지 못한다. 이는 동사와 형용사의 구분 기준으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느-’ 결합 구성과 관련해서도 역시 적용된다. 즉 동사 뒤에서는 ‘-느-’가 결합된 구성을, 형용사 뒤에서는 ‘-느-’가 결합되지 않은 구성을 선택해서 연결해야 한다.

한국인의 경우 한국어에 대한 직관이 있기 때문에 ‘-느-’ 결합 구성에 대한 판단이 그리 어렵지 않다. 하지만 외국인 학습자의 경우 한국어에 대한 직관이 없기 때문에 한국어 교재나 한국어 학습사전에서 ‘-느-’ 결합 구성과 관련된 정보를 찾고 그 정보에 의지하여 해당되는 구성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몇몇 한국어 교재의 경우 ‘-느-’ 결합 구성과 관련하여 그 정보가 정확하지 않거나 그런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있다. 사실 회화에서 ‘-느-’ 결합 구성의 경우 ‘-느-’를 생략하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공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다.<sup>2)</sup> 이런 정보를 한국어 교재에서 정확하게 제시하지 않을 경우 외국인 학습자가 잘못된 구성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

‘-느-’ 결합 구성과 관련하여 생각할 수 있는 또 다른 문제는 동사 과거형과 형용사 현재형의 형태가 동일한 경우이다. 관형사형어미의 경우 ‘-(으)ㄴ’이라는 연결 정보만으로는 동사 과거형인지 형용사 현재형인지 알 수 없다. 물론 동사와 형용사라는 품사만 알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반영하듯이 대부분의 한국어 상급 교재에서 ‘-(으)ㄴ/는’ 같은 형식으로 문법 정보를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된다고 할 수 있다. 외국인이 한국어를 배울 때는 한국어 교재에 나오는 문법 정보가 정확하고 믿을 수 있는 것임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점에서 기존의 한국어 교재에는 문제가 있다고 하겠다.

사실 본고에서 대상으로 하는 ‘-느-’ 결합 구성은 좀 복잡하다. ‘-느-’ 결합 구성 중에서 관형사형어미 ‘-는’의 결합 구성은 그 구성을

파악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다. 문제는 종결형이나 연결형에 쓰이는 ‘-느-’ 결합 구성이다. 이들 구성의 경우 회화에서 ‘-느-’가 생략되어 쓰이는 경우도 많은데 한국어 교재에서는 이를 반영하여 ‘-느-’를 생략하고 제시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한국어사전과 한국어 학습사전 등을 참고로 ‘-느-’가 생략되어 제시된 경우라도 ‘-느-’ 결합이 가능한 것은 ‘-느-’ 결합 구성으로 처리하려고 한다. 그리고 ‘-느-’ 결합 구성과 관련하여 동사만을 대상으로 하면 형용사와의 관련을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형용사와 연결되는 구성도 다루려고 한다.

이런 ‘-느-’ 결합 구성과 관련된 문제는 2장과 3장에서 다룰 것인데, 한국어 상급 교재에 나타나는 문제를 확인하기 위하여 우선 ‘-느-’ 결합 구성이 동사, 형용사, ‘있다, 이다, -었-, -겠-’ 뒤에서 어떠한 분포를 보이는지 <표준국어대사전>에 나오는 활용 정보를 바탕으로 그 분포 양상을 살펴보겠다.<sup>3)</sup> 4장에서는 한국어 교재에서 ‘-느-’ 결합 구성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 살펴볼 것이고 5장에서는 ‘-느-’ 결합 구성을 어떻게 제시할 것인가 하는 방법과 관련하여 논의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경희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출판한 상급 교재 또는 고급 교재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초급이나 중급 교재와 관련해서는 후일을 기한다.

## 2. ‘-느-’ 결합 구성의 특성

본고에서 ‘-느-’ 결합 구성으로 보는 것은 동사 뒤에서는 ‘-느-’가 결합된 구성이 선택되고 형용사 뒤에서는 ‘-느-’가 결합되지 않은 구성이 선택되는 경우이다.<sup>4)</sup> 그리고 동사 뒤에서 ‘-느-’가 생략되어 사용되는 결합 구성에 대해서도 ‘-느-’ 결합 구성으로 처리한다. 동사 뒤에는 ‘-느-’가 연결되고 형용사 뒤에는 연결되지 않는 것을 기준으로 하여 ‘-느-’ 결합 구성을 다루고자 할 경우 그 기준이 단순하고 명확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체는 그렇게 단순하고 명확하지 않다고 하겠다. ‘-느-’의 경우 형태는 같지만 문법적인 기능에서 차이를 보이는 두 가지 ‘-느-’가 있기 때문이다. 즉, ‘-었-, -겠-’ 등과 대립을 보이는 ‘-느<sup>1</sup>-’과, ‘-었-, -겠-’과 대립을 보이지 않고 ‘-었-, -겠-’ 뒤에도 연결되는 ‘-느<sup>2</sup>-’가 있는 것이다.<sup>5)</sup>

‘-느-’와 관련하여 이 두 가지 ‘-느-’를 구별하여 다룰 수도 있겠지만 본고는 ‘-느-’가 결합되는 구성의 양상을 살피기 위해 이를 구별하지 않고 ‘-느-’가 결합되는 구성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본고에서는 ‘-느-’라는 형태에만 주목하고 그 문법적인 기능이나 의미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이다. ‘-느-’ 결합 구성과 관련하여 한국어 교재에서 어떠한 유형으로 제시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이를 한국어 교육에서

어떠한 형식으로 제시할 수 있을지를 살피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기 때문이다.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느-’ 결합 구성과 관련하여 어떠한 형식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살펴보겠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느-’ 결합 구성의 경우 ‘-느-’가 생략되지 않은 형태에 대해서만 표제어로 제시하고 ‘-느-’가 생략된 형태에 대해서는 표제어로 제시하고 있지 않다. 예를 들면, 의문형어미 ‘-느냐’, ‘-냐’, ‘-으냐’의 경우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1) a. -느냐

(‘있다’, ‘없다’, ‘계시다’의 어간, 동사 어간 또는 어미 ‘-으시-’, ‘-었-’, ‘-겠-’ 뒤에 붙어) 해라할 자리에 쓰여, 물음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지금 무엇을 먹느냐?/안에 누가 있느냐?/너는 그때 학생이었느냐?/  
아버님이 어디 가셨느냐?/무엇을 택하느냐에 따라 앞길이 달라진다.

b. -냐

(‘이다’의 어간, 받침 없는 형용사, ‘ㄹ’ 받침인 형용사 어간 또는 어미 ‘-으시-’, ‘-었-’, ‘-겠-’ 뒤에 붙어) 해라할 자리에 쓰여, 물음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하늘이 푸르냐?/애가 네 동생이냐?/너는 누구냐?/그게 뭐냐?

c. -으냐

(‘ㄹ’을 제외한 받침 있는 형용사 어간 뒤에 붙어) 해라할 자리에 쓰여, 물음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방이 넓으냐?/닭시가 그리도 좋으냐?

위의 (1)에서 알 수 있듯이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동사의 경우 ‘-느냐’만 제시하고 형용사의 경우 ‘-냐, -으냐’를 제시하고 있다.

<표준국어대사전>의 이런 기술 방식은 한국어 회화에서 흔히 동사의 경우 보통 ‘-느-’를 생략하고 ‘-냐’만 사용할 때가 많은데 이런 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회화에서 주로 ‘-느-’가 생략되어 사용되는 것만을 반영해 많은 한국어 상급 교재에서 ‘-느-’가 생략된 ‘-냐’만을 제시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라 하겠다. 한국어 상급 교재를 살피기 앞서 <표준국어대사전>의 기술을 바탕으로 ‘-느-’ 결합 구성을 정리하고 한국어 상급 교재에서 ‘-느-’ 결합 구성이 어떻게 기술되어 있는지 고찰하겠다.

### 3. ‘-느-’ 결합 구성의 분류

이 장에서는 어떤 형태가 ‘-느-’ 결합 구성에 속하는지를 알기 위해 <표준국어대사전>을 대상으로 그 형태를 추출하고 이들을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겠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어미로 표시되거나 어미나 조사 등의 문법 정보가 없는 형태들만 대상으로 하였고 조사로 표시되는 ‘-는’은 제외하였다.

다음 표에서 ‘-느-’ 결합 구성이 동사 현재형, 동사 과거형, 형용사, ‘있다, 이다, -었-, -겠-’ 뒤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대표형을 중심으로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sup>6)</sup> <표준국어대사전>에 ‘-느-’ 결합 구성과 관련되는 활용 정보가 없거나 정확하지 않은 경우 국립국어원의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 2>에 나오는 활용 정보를 참조하려 했으나 두 책은 비슷한 활용 정보를 보였다.<sup>7)</sup>

(2) ‘-느-’ 결합 구성의 유형<sup>8)9)</sup>

	동사 현재형		동사 과거형		형용사		있다	이다	었	겠
	자음	모음	자음	모음	자음	모음				
1A	는		은	ㄴ	은	ㄴ	는	ㄴ		는
1B	는걸		은걸	ㄴ걸	은걸	ㄴ걸	는걸	ㄴ걸	는걸	는걸
2A	는다	ㄴ다			다			다	다	다
2B	느니						느니			
3	는데				은데	ㄴ데	는데	ㄴ데	는데	는데
4A	는구나				구나			구나	구나	구나
4B	느니만큼				으니	니만	느니	니만	으니	으니
					만큼	큼	만큼	큼	만큼	만큼
5	는다	ㄴ다			다고			라고	다고	다고
	고	고								
6	느냐				으냐	냐	느냐	냐	느냐	느냐
								냐	냐	냐

위 표에서 제시한 각각의 유형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우선 유형 <1A>에 속하는 것은 관형사형어미 ‘-는’과 관련되는 것으로, 이 유형에는 관형사형어미만 있다. 동사 현재형과 ‘있다, -겠-’ 뒤에서는 ‘-는’, 동사 과거형과 형용사, ‘이다’ 뒤에서는 ‘-은/-ㄴ’ 형태가 나타난다.<sup>10)</sup> <1B>도 <1A>와 비슷한 분포를 보이는 것인데 ‘-느-’ 결합 구성이 ‘-었-’ 뒤에도 연결된다는 점이 다르다. 이들 유형에 속하는 것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3) <유형 1> ‘동사 현재형-는, 동사 과거형-은/-ㄴ, 형용사-은/-ㄴ’ 유형

1A. -는/-은/-ㄴ

1B. -는걸/-은걸/-ㄴ걸, -는바/-은바/-ㄴ바, -는지고/-은지고/-ㄴ지고,

<유형 1B>에 대한 <표준국어대사전>의 활용 정보에서는 ‘-은걸’ 유형이 ‘「1」 받침 있는 동사, 「2」 받침 있는 형용사’에 연결되는 것으로, ‘-니걸’ 유형이 ‘「1」 받침 없는 동사, ㄹ받침인 동사, 「2」 받침 없는 형용사, ㄹ받침인 형용사’에 연결되는 것으로 제시되어 있다. 동사 과거형과 형용사에 연결되는 것을 같은 표제어 안에서 설명한 것이다. 이에 비해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 2>에서는 ‘-은걸/-니걸’에 대해 형용사에 연결되는 정보만 제시하고 있다.<sup>11)</sup>

<유형 2>는 동사 현재형에 ‘-는다/-니다’, 형용사에 ‘-다’가 연결되는 유형이다. <2A>는 동사 현재형에 ‘-는다/-니다’가, 형용사와 ‘이다, -었-, -겠-’ 뒤에 ‘-다’가 연결되는 유형이고 <2B>는 동사 현재형과 ‘있다’ 뒤에 ‘-느니’가 연결되는 유형이다. 여기 속하는 구성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4) <유형 2> ‘동사 현재형-는다/-니다, 형용사-다’ 유형<sup>12)</sup>

2A. -는다<sup>1</sup>/-니다<sup>1</sup>/-다<sup>?</sup>, -는-<sup>2</sup>/-니-<sup>3</sup>, -는다<sup>2</sup>/-니다<sup>2</sup>

-는다마는/-니다마는/-다마는, -는다만/-니다만/-다만<sup>2</sup>

2B. -느니<sup>1</sup>, -느니만, -느라, -느라고

<2A>의 ‘-는다<sup>1</sup>, -는다<sup>2</sup>’는 ‘있다’ 뒤에 연결되지 않고 ‘-는-<sup>2</sup>’은 ‘있다’ 뒤에 연결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이지만 ‘-느-’가 ‘-었-, -겠-’과 대립을 보인다는 점에서 같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이 유형에 속하는 형태와 관련해서 <표준국어대사전>과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 2>는 표제어 선정에 있어서 좀 차이를 보인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는다<sup>1</sup>, -는다<sup>2</sup>’와 ‘-는-<sup>2</sup>’를 독립된 항목으로 설정하고 있지만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 2>에는 ‘-는다<sup>1</sup>’에 해당되는 ‘-는다’라는 항목만 있는 것이다.<sup>13)</sup> 각각 사전과 외국인을 위한 문법책이라는 성격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2B>의 ‘-느니<sup>1</sup>, -느라, -느라고’는 모두 연결어미이고 ‘-느니만’은 ‘-느니만 못하다’ 구성으로 사용되는 형태이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이들을 모두 독립된 표제어로 선정하고 있지만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 2>에서는 ‘-느니만’을 독립된 표제어로 선정하지 않고 ‘-느니<sup>1</sup>’ 부분에서 ‘-느니만 못하다’ 구성으로 설명하고 있다. ‘있다’와의 연결과 관련해서 두 책 모두 ‘-느니, -느니만’이 ‘있다’ 뒤에 연결된다고 기술하고 있다. ‘-느라, -느라고’는 이유, 원인 또는 목적을 나타내는 연결어미로 동사 뒤에 연결되기 때문에 ‘있다’와 연결되기 어렵다고

하겠다.

<유형 3>은 동사와 ‘있다, -었-, -겠-’ 뒤에는 ‘-는데’가, 형용사와 ‘이다’ 뒤에는 ‘-은데/-는데’가 연결되는 유형이다. 이 유형에 속하는 구성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5) <유형 3> ‘동사-는데, 형용사-은데/-는데’ 유형

-는데/-은데/-는데, -는덤표/-은덤표/-는지/-은지<sup>4</sup>/-는지,  
-느니<sup>2</sup>/-으니<sup>2</sup>/-니<sup>8</sup>, -느니<sup>3</sup>/-으니<sup>3</sup>/-니<sup>9</sup>, -느니라/-으니라<sup>1</sup>/-니라<sup>2</sup>,  
-는가/-은가<sup>2</sup>/-는가<sup>1</sup>, -는감/-은감<sup>2</sup>/-는감, -는고/-은고<sup>3</sup>/-는고<sup>1</sup>,  
-는파니/-은파니/-는파니

<유형 3>에서 ‘-느니<sup>2</sup>’는 ‘-느니 -느니’ 구성으로, ‘-느니<sup>3</sup>’은 하계체로 쓰이는 것으로 <2B>의 ‘-느니<sup>1</sup>’과는 다른 것이다.<sup>14)</sup>

<유형 3>은 ‘-었-, -겠-’ 뒤에 ‘-느-’ 결합 구성이 오기 때문에 ‘-느-’와 ‘-었-, -겠-’의 대립은 없다고 하겠다. 이때의 ‘-느-’는 ‘-었-, -겠-’과 대립을 보이는 ‘-느-’와는 문법적 특성을 달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장에서 ‘-었-, -겠-’과 대립을 보이는 ‘-느-’를 ‘-느-<sup>1</sup>’로 하고 대립을 보이지 않는 ‘-느-’를 ‘-느-<sup>2</sup>’로 했는데 문법적 특성에 따라 ‘-느-’ 결합 구성도 ‘-느-<sup>1</sup>’ 결합 구성, ‘-느-<sup>2</sup>’ 결합 구성으로 나눌 수도 있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 표제어로 나오지만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 2>에는 없는 형태는 ‘-는덤표, -느니라, -는감, -는고, -는파니’ 유형이다. 이들 구성은 그리 자주 쓰이는 구성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제외한 듯하다.

<유형 4A>는 동사 뒤에서는 ‘-는구나’가, 형용사와 ‘이다, -었-, -겠-’ 뒤에서는 ‘-구나’가 연결되는 구성이다. <4B>도 비슷한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동사와 ‘있다’ 뒤에서는 ‘-느니만큼’이, 형용사와 ‘이다, -었-, -겠-’ 뒤에서는 ‘-으니만큼’과 ‘-니만큼’이 연결되는 구성이다. 여기에 속하는 예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6) <유형 4> ‘동사-는구나, 형용사-구나’ 유형

4A. -는구나/-구나, -는구려/-구려, -는구면/-구면, -는군/-군  
4B. -느니만큼/-으니만큼/-니만큼, -느니만치/-으니만치/-니만치

<유형 4>는 ‘-느-’가 ‘-었-, -겠-’과 대립을 보여 동사 뒤에는 ‘-느-’가 있는 구성이 연결되고 형용사와 ‘-었-, -겠-’ 뒤에는 ‘-느-’가 없는 구성이 연결된다. ‘있다’ 뒤에 연결되는 것과 관련하여 <4A>와 <4B>에

속하는 구성에 대한 문법 기술에 차이가 있지만 ‘-느-’가 ‘-었-, -겠-’과 대립을 보인다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

<4A>에 속하는 구성과 관련하여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 2>는 <표준국어대사전>보다 많은 표제어를 보이는데 ‘-는구나, -는구려, -는구만, -는구먼, -는군, -는군요’ 등이 나오고 그 설명도 훨씬 자세하다.<sup>15)</sup> 이들 구성이 회화에서 자주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외국인에게 이들 구성의 용법을 알려주기 위해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이와는 달리 <4B>에 속하는 ‘-느니만치’는 두 책 다 ‘-느니만큼’을 참조하도록 표시하고 있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느니만큼, -느니만치’ 유형의 활용 정보와 관련하여 특이한 것이 있는데 ‘-니만큼, -으니만치, -니만치’에 대해 ‘받침 있는 용언’ 뒤에 연결된다는 정보가 있다. 다른 형태에 대해서는 ‘동사, 형용사’로 구별하여 제시하고 있는 것과 비교된다.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 2>에서는 ‘용언’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다. 왜 이런 차이를 보이는데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유형 5>에 속하는 것은 간접인용의 평서형 형태들이다. 이들은 동사 뒤에서는 ‘-는다고/-니다고’가, 형용사와 ‘-었-, -겠-’ 뒤에서는 ‘-다고’가, ‘이다’ 뒤에서는 ‘-라고’가 연결되는 유형이다.<sup>16)</sup> ‘이다’의 경우 앞에서 다른 유형들에서는 받침 없는 형용사와 동일한 형태가 연결되었으나 <유형 5>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있다’와 관련되는 활용 정보가 없는 것도 이 유형의 특징인데 이 유형에 속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7) <유형 5> ‘동사-는다고/-니다고, 형용사-다고, 이다-라고’ 유형<sup>17)</sup>

- 는다고<sup>1</sup>/-니다고<sup>1</sup>/-다고<sup>2</sup>/-라고<sup>3</sup>, -는다고<sup>2</sup>/-니다고<sup>2</sup>/-다고<sup>3</sup>/-라고<sup>4</sup>,
- 는다고<sup>3</sup>/-니다고<sup>3</sup>/-다고<sup>4</sup>/-라고<sup>5</sup>, -는다나/-니다나/-다나/-라나,
- 는다네/-니다네/-다네/-라네, -는다느냐/-니다느냐/-다느냐/-라느냐,
- 는다느니/-니다느니/-다느니/-라느니, -는다는/-니다는/-다는/-라는,
- 는다니<sup>1</sup>/-니다니<sup>1</sup>/-다니<sup>1</sup>/-라니<sup>1</sup>, -는다니<sup>2</sup>/-니다니<sup>2</sup>/-다니<sup>2</sup>/-라니<sup>2</sup>,
- 는다니까/-니다니까/-다니까/-라니까, -는다며/-니다며/-다며/-라며,
- 는다면/-니다면/-다면<sup>2</sup>/-라면<sup>2</sup>, -는다면서/-니다면서/-다면서/-라면서,
- 는다손/-니다손/-다손/-라손, -는다오/-니다오/-다오/-라오,
- 는다지/-니다지/-다지<sup>2</sup>/-라지<sup>2</sup>, -는단/-니단/-단<sup>23</sup>/-란<sup>6</sup>,
- 는단다/-니단다/-단다/-란다, -는달/-니달/-달<sup>9</sup>/-랄,
- 는답/-니답/-답<sup>14</sup>/-랍<sup>2</sup>, -는답니까/-니답니까/-답니까/-랍니까,
- 는답니다/-니답니다/-답니다/-랍니다, -는답디까/-니답디까/-답디까/-랍디까,
- 는답디다/-니답디다/-답디다/-랍디다, -는답시고/-니답시고/-답시고/-랍시고,

-는대/-ㄴ대<sup>1</sup>/-대<sup>17</sup>/-래<sup>1</sup>, -는대도/-ㄴ대도/-대도<sup>9</sup>/-래도<sup>2</sup>,  
 -는대서/-ㄴ대서/-대서<sup>8</sup>/-래서<sup>2</sup>, -는대서야/-ㄴ대서야/-대서야/-래서야,  
 -는대야/-ㄴ대야/-대야<sup>5</sup>/-래야, -는대요/-ㄴ대요/-대요<sup>2</sup>/-래요,  
 -는땀자/-ㄴ땀자/-땀자/-땀자

이 유형에 속하는 구성이 제일 많은데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구체적인 활용 정보가 없는 구성도 많다. 예를 들면, ‘-는대’에 대한 설명에서 ‘의문을 나타내는 종결어미’라는 정보와 “-는다고 해”의 준말’이라는 정보 외에는 없다. 이들 구성도 ‘-는다고/-ㄴ다고/-다고/-라고’ 구성과 같은 활용을 보이는 것으로 보아 같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 2>는 <표준국어대사전>보다 세분화된 표제어를 제시한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위의 ‘-는대’처럼 두 가지 다른 문법적 기능을 가진 경우라도 독립된 표제어로 설정하지 않았음에 비해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 2>에서는 독립된 표제어로 설정하여 설명하고 있다. 또한 ‘-는다’ 뒤에 ‘-더-’ 결합형이나 ‘-든지, -잖아’ 등이 오는 경우도 표제어로 설정하였다. 외국인에게 한국어에 대한 문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 2>에서는 복합적인 구성의 경우 그 구성을 분석하지 않고 그대로 제시하여 설명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에 <표준국어대사전>에 나오는 ‘-는다나, -는다느냐, -는다느니, -는다손, -는다오, -는다달, -는다답디까, -는다답디다’ 등의 유형은 자주 쓰이지 않는 표현으로 판단하여 제시하고 있지 않은 듯하다.

이처럼 두 책은 표제어 선정이나 그 설명 방식에서 좀 차이를 보인다. 이는 두 책이 대상으로 하고 있는 독자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하겠는데 <표준국어대사전>은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사람에게 한국어 문법 정보를 알려 주기 위한 것이고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 2>는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사람에게 한국어 문법 정보를 알려 주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유형 6>은 동사와 ‘있다, -었-, -겠-’ 뒤에서는 ‘-느냐’가 결합되고 형용사와 ‘이다, -었-, -겠-’ 뒤에서는 ‘-으냐/-냐’가 결합되는 유형이다. 여기에 속하는 구성은 다음과 같다.

(8) <유형 6> ‘동사-느냐, 형용사-으냐/냐’ 유형<sup>18)</sup>

-느냐/-으냐/-냐, -느냐고<sup>1</sup>/-으냐고<sup>1</sup>/-냐고<sup>1</sup>,  
 -느냐고<sup>2</sup>/-으냐고<sup>2</sup>/-냐고<sup>2</sup>, -느냐네/-으냐네/-냐네,  
 -느냐는/-으냐는/-냐는, -느냐니/-으냐니/-냐니,  
 -느냐니까/-으냐니까/-냐니까, -느냐며/-으냐며/-냐며,  
 -느냐면/-으냐면/-냐면, -느냐면서/-으냐면서/-냐면서,



-느난/-으난/-난, -느날/-으날/-날, -느내/-으내/-내,  
-느내요/-으내요/-내요, -느뇨/-으뇨/-뇨

<유형 6>에서 ‘-냐’ 등에는 ‘-었-, -겠-’ 뒤에 연결된다는 활용 정보가 있는데 ‘-뇨’에는 ‘-었-, -겠-’ 뒤에 연결된다는 활용 정보가 없다. 한편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 2>에서는 <표준국어대사전>과 달리 ‘-냐’ 등의 활용 정보에 ‘-었-, -겠-’ 뒤에 연결된다는 정보가 없다. 그리고 보충·심화 설명에서 일상생활에서 동사, 형용사 관계없이 ‘-냐’로 씬을 밝히고 있다.

<유형 6>에서도 <유형 5>와 마찬가지로 <표준국어대사전>의 표제어와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 2>의 표제어에 차이가 있다.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 2>에는 ‘-느-’ 뒤에 ‘-기에, -는데, -더니, -던데’ 등이 결합된 것도 표제어로 제시하고 있다. 반면에 <표준국어대사전>에 나오는 ‘-느냐네, -느난, -느날, -느내, -느내요, -느뇨’ 유형은 나오지 않는다. 이들 유형은 잘 쓰이지 않는 것으로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

이상에서 ‘-느-’ 결합 구성을 여섯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느-’와 ‘-었-, -겠-’의 대립 관계만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현재시제’를 나타내는 ‘-느-’의 문법적 특성이 유지되는 구성과 그렇지 않은 구성으로 나눌 수 있다. ‘현재시제’라는 ‘-느-’의 특성이 드러나는 구성은 <유형 1A>의 ‘-는’, <유형 2>의 ‘-는다/-니다’와 ‘-느니’, <유형 4>의 ‘-는구나’와 ‘-느니만큼’, <유형 5>의 ‘-는다고’ 등이다. 이들 유형에서는 ‘-느-’가 ‘-었-, -겠-’, 특히 ‘-었-’과 ‘현재시제’, ‘과거시제’로 대립한다. 반면 <유형 1B>의 ‘-는걸’, <유형 3>의 ‘-는데’, <유형 6>의 ‘-느냐’ 등은 ‘-었-, -겠-’ 뒤에 ‘-느-’ 결합 구성이 연결되기 때문에 ‘현재시제’라는 ‘-느-’의 특성이 사라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외국어로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에게는 ‘-느-’ 결합 구성과 관련하여 이러한 활용 정보가 필요한데 4 장에서는 한국어 상급 교재를 대상으로 이들 교재에서 ‘-느-’ 결합 구성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살펴보겠다.

#### 4. 한국어 상급 교재에 나타나는 ‘-느-’ 결합 구성

한국에서 출판된 한국어 상급 교재 중에 문법 사항과 관련하여 동사와 형용사에 대한 정보를 표제어에 제시한 교재는 서울대학교 교재뿐이다. 다른 한국어 교재에서는 이런 문법 정보가 제시되지 않는다. 한국어 상급 교재에 나오는 문법 사항을 크게 관형사형 결합 구성과 종결형, 연결형 결합 구성으로 나누어 논의하겠다.

우선 서울대학교 교재에서는 동사(V)와 형용사(A) 등의 연결 정보를 제시한 후 문법 사항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다른 문법 사항에 대한

언급은 없다. 서울대학교 교재에 나타나는 ‘-느-’ 결합 구성을 관형사형 결합 구성과 종결형, 연결형 결합 구성으로 나누어 제시하는데 먼저 관형사형 결합 구성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9) 관형사형 결합 구성

가. 형용사/동사-관형사형

N 처럼 A/V-(으)ㄴ/는 N 도 없다, A/V-(으)ㄴ/는 데다가,  
 A/V-(으)ㄴ/는 경우가 있다, A/V-(으)ㄴ/는/(으)ㄴ 경우(에)(는),  
 A/V-(으)ㄴ/는 것으로 나타나다, A/V-(으)ㄴ/는 셈이다,  
 그렇다고 A/V-(으)ㄴ/는 것은 아니다, A/V-(으)ㄴ/는 데(에) 반해,  
 A/V-(으)ㄴ/는 듯하다, A/V-(으)ㄴ/는 것은 당연하다,  
 A/V-(으)ㄴ/는 게 틀림없다, A/V-(으)ㄴ/는 반면에

나. 동사-관형사형

V-는 관습, V-는 데(에) 몰두하다, V-는 사이(에), V-는 한,  
 V-(으)ㄴ 채(로), V-는 바람에, N 을/를 V-는 데 이용하다,  
 V-는 데(에) 일생을 바치다, V-는 수가 많다,  
 V-는 게 고작이다, V-는 데(에) 마음을 붙이다

관형사형 결합 구성에서 (9 가)는 관형사형이 형용사, 동사에 연결된다는 정보가 있고 (9 나)는 동사에만 연결된다는 정보가 있다. (9 가)는 관형사형이 형용사, 동사에 연결된다는 의미로 ‘A/V-(으)ㄴ/는’라는 정보가 제시되어 있는데 ‘-(으)ㄴ’이 형용사에 연결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9 가)의 구성을 설명하기 위해 제시하고 있는 많은 예에서 형용사 뒤에는 ‘-(으)ㄴ’이, 동사 뒤에는 ‘-는’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몇몇 구성에서는 ‘-(으)ㄴ’이 동사 과거형 뒤에 사용된 예가 나오는데 다음이 그런 예이다.<sup>19)</sup>

(10) 가. 약속을 못 지켜서 결국 거짓말한 셈이 되어 버렸다. <서울, 89>

나. 오늘이 12월 23일이니 올해도 다 간 셈이다. <서울, 89>

다. 그렇다고 공부가 끝난 것은 아니다. <서울, 106>

라. 많이 걸은 데다가 점심을 못 먹어서 말할 힘도 없어요. <서울, 58>

위의 (10 가, 나)는 ‘-(으)ㄴ/는 셈이다’ 구성으로 동사인 ‘거짓말하다, 가다’ 뒤에 과거형인 ‘-ㄴ’이 쓰였다. (10 다, 라)도 동사 과거형인 ‘끝난, 걸은’이 쓰였다. 형용사와 동사 과거형에 대한 연결 정보를 정확하게 제시한 것이 아니라 하겠다. 특히 (9 나)에서 ‘-(으)ㄴ 채(로)’라는 동사 과거형이 연결되는 구성이 나와서 (9 가)에 나오는 구성은 형용사 뒤에는

‘-(으)ㄴ’이, 동사 뒤에는 ‘-는’이 연결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한편 (9 나)의 경우 관형사형이 동사 뒤에만 연결된다는 의미로 ‘V-는, V-(으)ㄴ’이라는 정보가 나오지만 해당되는 구성이 정말 동사 뒤에만 연결되는 것인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9 나) 구성 중에 ‘-는 한, -는 바람에’의 경우에는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는 한’ 구성으로 쓰여, ‘-는 바람에’ 구성으로 쓰여”라는 활용 정보가 있지만 ‘-(으)ㄴ 체’와 관련해서 “‘-은/는 체로’, ‘-은/는 체’ 구성으로 쓰여”라는 활용 정보가 있어 동사 뒤에만 연결된다고 하기 어렵다.<sup>20)</sup> 다른 구성에 대해서는 이러한 활용 정보를 찾기 어렵다. 이처럼 서울대 교재는 형용사와 동사에 대한 연결 정보를 표시하였지만 그 정보가 부족하고 부적절한 경우가 있다고 하겠다.

다음으로 종결형, 연결형 결합 구성에 대해 살펴보겠다. 역시 형용사, 동사에 연결되는 경우와 동사에만 연결되는 경우로 나누었다.

(11) 종결형, 연결형 결합 구성

가. 형용사/동사-종결형, 연결형

A/V-냐든지 A/V-냐든지, A/V-냐에 따라 다르다,  
A/V-다/자/냐/라니까, A/V-다느니 A/V-다느니 (하면서),  
A/V-니 A/V-니 (하면서), 어쩌나 A/V-(으)ㄴ/는지,  
A/V-(으)ㄴ/는다 A/V-(으)ㄴ/는다 하면서(도)

나. 동사-종결형, 연결형

V-느니 차라리

형용사, 동사에 연결되는 구성과 관련하여 형용사 뒤에 연결되는 활용 정보만을 제시한 것이 많다. 간접인용의 의문형과 관련되는 ‘-냐’ 등이 그런 것인데 ‘-다느니 -다느니, -니 -니’와 관련되는 정보도 역시 부정확하다고 하겠다.

실제로 이 교재에 나오는 예를 보면 제시된 연결 정보만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예들이 많이 나온다. 다음이 그런 예이다.

(12) 가. 한국말을 유창하게 잘한다면서 칭찬해서 기분이 좋았어요.

<서울, 67>

나. 내 동생은 누가 자기 옷을 입고 나갔냐면서 화를 냈어요. <서울, 67>

다. 아무도 안 다쳐서 다행이라면서 기뻐했어요. <서울, 67>

라. 여행 비용은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서울, 98>

마. 똑같은 영화도 누구와 보느냐에 따라 느낌이 달라요. <서울, 98>

‘잘한다면서, 나갔냐면서, 다행이라면서’는 동사, ‘-었-, 이다’ 뒤에

‘A/V-다/자/냐/라면서’가 연결된 것이고 ‘가느냐에 따라, 보느냐에 따라’는 ‘A/V-냐에 따라 다르다’ 구성이 동사 뒤에서 ‘-느냐’ 형태로 나타난 것이다. 이런 예들은 목록에 제시된 정보만으로는 알 수가 없다. 또한 ‘A/V-냐든지 A/V-냐든지’라는 구성을 설명하는 부분에 나오는 예도 비슷하다. ‘이다, 있다’와 동사 뒤에 연결된 ‘뭐냐든지<서울, 67>, 몇 살이냐든지<서울, 68>, 포함되냐든지<서울, 68>, 있냐든지<서울, 68>’의 예가 나온다.

다음은 ‘A/V-다느니 A/V-다느니, A/V-니 A/V-니’와 관련되는 예인데 역시 이 정보만으로는 부족하다.

(13) 가. 여행을 간다느니 만다느니 하면서 의논하고 있어요. <서울, 226>

나. 동생이 간다느니 언니가 간다느니 하다가 아무도 안 갔어요.

<서울, 226>

다. 음식의 양이 적으니 많으니 말이 많다. <서울, 226>

라. 그 가족은 여행을 가느니 마느니 하면서 의논하고 있어요.

<서울, 226>

마. 개발을 해야 하느니 말아야 하느니 하면서 정치가들이 토론하고

있어요. <서울, 226>

‘-느다느니’가 동사 뒤에, ‘-으니’가 형용사 뒤에 연결된 예가 나오고 ‘-느니’가 동사 뒤에 연결된 예가 나온다. ‘A/V-ㄴ/는다 A/V-ㄴ/는다 하면서(도), 어쩌나 A/V-(으)ㄴ/는지’ 구성에 나오는 ‘집안 청소를 한다 한다 하면서도<서울, 252>, 어쩌나 목이 마른지<서울, 253>, 어쩌나 오래 했는지<서울, 253>’ 에에서처럼 동사 뒤에 ‘-느다, -느지’가, ‘-었-’ 뒤에 ‘-는지’가 연결된 예가 나온다. 이러한 예들에서 알 수 있듯이 제시된 연결 정보가 부족하다고 하겠다. 이처럼 이 교재는 형용사, 동사와 관련되는 활용 정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듯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제대로 제시하고 있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설명 방법은 한국어를 외국어로 배울 때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

연세대학교 교재에 나타나는 ‘-느-’ 결합 구성을 역시 관형사형 결합 구성과 종결형, 연결형 결합 구성으로 나누어 살펴보겠다. 먼저 관형사형 결합 구성에 대해 살펴보겠는데 이 교재에는 동사와 형용사에 대한 연결 정보가 없기 때문에 ‘-는/은/ㄴ/인’으로 제시된 경우는 형용사, 동사에 연결되는 것으로, ‘-는, -은/ㄴ’으로 제시된 경우는 동사에 연결되는 것으로 제시하였다.<sup>21)</sup>

(14) 관형사형 결합 구성

가. 형용사/동사-관형사형

-는/은/ㄴ/인 듯싶다, -는/은/ㄴ/인 만큼, -는/은/ㄴ 썬치고,  
-는/은 탓에, -는/은/ㄴ/인 반면, -는/은/ㄴ 바

나. 동사-관형사형

-는 한, -는 데, -는 가운데, -는 날엔, -는 등 마는 등 하다,  
-는 한이 있더라도  
-은/ㄴ 채, -은/ㄴ 끝에, -은/ㄴ 이상

‘형용사/동사-관형사형’ 구성에 나오는 표현은 ‘동사-는, 형용사-은/ㄴ, 이다-인/ㄴ’이 연결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고 ‘동사-관형사형’ 구성에 나오는 표현은 ‘동사 현재형-는, 동사 과거형-은/ㄴ’이 연결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그리 단순하지 않다.

(14 나)에 제시된 구성 중 동사 뒤에만 쓰이는 것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것은 ‘-는 한, -는 한이 있더라도’ 정도이고 다른 구성은 그렇지 않다. 특히 의존명사 ‘이상’에 대해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은, -는’ 뒤에 쓰여”라는 활용 정보를 제시하고 있다. 의존명사 ‘등’에 대해서도 “-은/는/을 등 만/마는/말 등’ 구성으로 쓰여”, “-다는/냐는/라는/자는 등 -다는/냐는/라는/자는 등’ 구성으로 쓰여”의 활용 정보를 제시하였다. ‘가운데’와 관련해서 “-ㄴ, -는’ 다음에 쓰여”라는 활용 정보가 나오는데 제시된 예 중에는 ‘어려운 가운데서도’라는 예가 있어서 ‘-ㄴ’은 형용사 뒤에 연결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준국어대사전>에 의존명사나 일반명사에 대한 활용 정보가 나올 경우에는 이를 무시하기는 어려울 듯하다.

‘형용사/동사-관형사형’으로 분류된 (14 가) 구성의 경우에도 문법 정보가 부족하다고 할 수 있는데 각 구성에서 어떤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는지 보겠다.

(15) 가. 대중문화는 상품화나 획일화라는 부정적인 측면도 갖고 있는 듯싶다. <연세 5, 170>

나. 최근 청소년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직업은 연예인인 듯싶다. <연세 5, 170>

다. 인생은 배움의 연속인 만큼 끊임없이 자기 계발을 해야 한다. <연세 5, 170>

라. 수강료가 저렴한 만큼 누구나 강좌를 들을 수 있다. <연세 5, 228>

마. 지금까지 최선을 다한 만큼 좋은 결과가 있겠지. <연세 5, 228>

이 교재에는 ‘듯싶다’ 앞에 오는 관형사형으로 (15 가, 나)에 나오는 ‘갖고 있는, 연예인인’처럼 ‘있다, 이다’에 연결된 것만 나온다. 그리고

(15 다, 라, 마)는 ‘이다’, 형용사, 동사 과거형 뒤에 연결된 것으로 동사 현재형의 예는 없다.

이는 다른 구성에 나오는 예도 비슷하다. ‘-는/은/니 섰치고, -는/은 탓에’ 구성에 나오는 예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16) 가. 속는 섰치고 그냥 사자. <연세 6, 166>

나. 그냥 밥 먹은 섰치고 일어나 하자. <연세 6, 166>

다. 아무 일도 없었던 섰치고 용서해 줄게. <연세 6, 166>

라. 계속 불규칙적인 식사를 한 탓에 위장병이 생겼다. <연세 6, 166>

마. 어제 술을 지나치게 많이 마신 탓에 오늘 출근을 못하고 말았다.

<연세 6, 166>

바. 요즘 일교차가 큰 탓에 감기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연세 6, 166>

동사 현재형과 형용사에 연결된 것은 ‘속는, 큰’ 정도이고 동사 과거형인 ‘먹은, 한, 마신’이 나오고 ‘없었던’이라는 예도 있는 것이다. 이처럼 제시된 활용 정보만으로는 동사에 연결되는 것인지 형용사에 연결되는 것인지 알기 어렵다고 하겠다.

다음으로 종결형, 연결형 결합 구성에 대해 보겠는데 ‘동사-종결형, 연결형’으로 분류한 것은 ‘-느니’이고 다른 구성은 ‘형용사/동사-종결형, 연결형’으로 분류하였다.<sup>22)</sup>

(17) 종결형, 연결형 결합 구성

가. 형용사/동사-종결형, 연결형

-긴 -나/은가/ㄴ가 보다, -는다고/ㄴ다고/다고,

-는다거나/ㄴ다거나/다거나, -는다손/다손 치더라도,

-는다고도/ㄴ다고도/다고도/이라고도/라고도 할 수 있다,

-는다기보다는/ㄴ다기보다는/다기보다는/이라고기보다는/라기보다는,

-는다뿐이지/ㄴ다뿐이지/다뿐이지, -는답시고/ㄴ답시고,

-는다는/ㄴ다는/다는 듯이, -는다는/ㄴ다는/다는 점에서

나. 동사-종결형, 연결형

-느니

이 구성 중에서 ‘-긴 -나/은가/ㄴ가 보다’를 제외하고 다른 구성은 대체로 동사 뒤에는 ‘-는-’ 결합형이, 형용사 뒤에는 ‘-ㄴ-’ 결합형이 연결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지만 그리 단순하지 않다. 3 장에서 동사의 경우 동사 현재형, 과거형 뒤에 연결되는 형태가 다를 때가 있고 동사 현재형, 과거형도 받침 있는 동사와 받침 없는 동사 뒤에 연결되는 형태가 다를 때가 있는 것을 보았다. 결국 동사, 형용사 뒤에 연결되는

구성을 선택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연세대학교 교재에서 ‘종결형, 연결형 결합 구성’에 대해 어떤 예를 들어 설명하는지 몇몇 구성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18) 가. 요새 전화 한 통 안하는 것을 보니까 바쁜가 바쁘냐 봐요.

<연세 5, 86>

나. 한 달에 책을 스무 권이나 읽는다니 책을 좋아하긴 좋아하냐 봐요.

<연세 5, 86>

다. 이 집은 좁다기보다는 내부 구조가 안 좋다고 봐. <연세 5, 198>

라. 아침마다 그 집 샌드위치를 먹는 건 맛이 있어서라기보다 시간이 없어서라고 보는 게 맞지. <연세 5, 198>

마. 학교를 안 다녔다뿐이지 그는 모르는 게 없다. <연세 6, 132>

바. 애인이 아니다뿐이지 그녀는 나에 대해 모르는 게 없어요.

<연세 6, 132>

사. 한 푼이라도 더 번답시고 밤낮으로 일하다가 병만 얻었다.

<연세 6, 198>

아. 너는 요리를 한답시고 부엌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으면 어떡하니?

<연세 6, 198>

위의 ‘바쁘냐, 좋아하냐’는 형용사, 동사 뒤에 다른 형태가 연결됨을 보이는 예이다.<sup>23)</sup> ‘좁다기보다는, 있어서라기보다’ 구성과 관련되는 예 중에는 동사 뒤에 연결되는 예가 없었다. ‘다녔다뿐이지, 아니다뿐이지’ 유형에 나오는 예는 ‘아니다뿐이지’를 제외하고 동사 과거형의 예만 있었다. ‘번답시고, 한답시고’의 ‘-는답시고/ㄴ답시고’는 받침 있는 동사, 받침 없는 동사에 연결되는 것인데 이것과 관련되는 ‘형용사-답시고’는 항목에 제시되지 않았다. 이처럼 목록에 나오는 문법 항목이 정확하지 않고 그 문법 항목의 용법을 보여 주는 용례도 적절하게 선택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고려대학교 교재에는 ‘-느-’ 결합 구성과 관련되는 문법 사항이 그리 많지 않다. 그리고 다른 교재와 마찬가지로 동사와 형용사에 대한 문법 정보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느-’ 결합 구성이 그리 많지 않지만 역시 관형사형 결합 구성과 종결형, 연결형 결합 구성으로 나누어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sup>24)</sup>

(19) 관형사형 결합 구성

-는 셈 치고, -는 한

-ㄴ 만큼

위의 목록을 보면 ‘-는 셈 치고, -는 한’은 동사 뒤에, ‘-ㄴ 만큼’은 형용사 뒤에 연결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 교재에서는 문법 항목을 설명하면서 ‘동사 어간 뒤에’, ‘동사나 형용사의 뒤에 붙어’ 등의 활용 정보를 제시하고 있다.

‘-는 셈 치고, -ㄴ 만큼’과 관련되는 예를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20) 가. 너는 보험 드는 셈 치고 담배부터 끊어. <고려 5, 43>

나. 말씀만으로도 고마워요. 선물은 받은 셈 칠게요. <고려 5, 43>

다. 이번 시험은 아주 어렵게 출제된 만큼 준비를 더 철저하게 하기 바랍니다. <고려 5, 65>

라. 뭐든지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오기 마련이잖아. <고려 5, 65>

‘드는, 받은’은 ‘-는 셈 치고’ 항목에 나오는 예인데 ‘받은’이라는 동사 과거형이 예로 제시되어 있다.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의존명사 ‘셈’과 관련되는 활용 정보 중에 “-은/는/을 셈 치다’ 구성으로 쓰여”라는 정보가 나오는데 이 교재에서는 이런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 또한 ‘-ㄴ 만큼’의 경우에도 이 교재에 ‘동사나 형용사의 뒤에 붙어’라는 연결 정보가 제시되어 있지만 용례로 사용된 것은 (20 다, 라)의 ‘출제된, 노력한’의 동사 과거형의 예이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만큼’과 관련해 “-은, -는, -을’ 뒤에 쓰여”라는 정보를 제시하고 있다. 결국 이 교재는 동사와 형용사 뒤에 연결된다는 정보를 제시하고 있지만 그 정보가 자세하지 않고 표제어로 제시한 것도 그 구성을 대표하는 형태가 아님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종결형, 연결형 결합 구성’에 대해 살펴보겠다. 목록만 보면 모두 형용사에 연결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니 -니, -냐 -냐’에 대한 문법 설명에서 “동사, 형용사, ‘명사+이다’에 붙어”라는 표현이 나온다.

(21) 종결형, 연결형 결합 구성

-니 -니, -냐 -냐

‘-니 -니, -냐 -냐’ 등 결합 구성을 설명하기 위해 제시한 예를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22) 가. 국어니 수학이니 공부도 중요하지만, 방학은 방학답게 보내야지.

<고려 6, 73>

나. 뭐니 뭐니 해도 매사에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는 것이 비결이라면 비결이랄까요? <고려 6, 73>



다. 넌 드라마 보면서 무슨 웁으냐 그르냐를 따지고 그래? <고려 6, 162>  
라.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고려 6, 162>

위의 ‘국어니 수학이니, 뭐니 뭐니 해도’는 동사, 형용사에 연결된 것이 아니다. 동사 뒤에는 ‘-느니 -느니’가, 받침 있는 형용사 뒤에는 ‘-으니 -으니’가 연결된다는 정보 없이 ‘-니 -니’만 제시되어 있는 것이다. 그것은 ‘-냐 -냐’의 경우도 동일하다. (22 다, 라)의 ‘웁으냐 그르냐, 죽느냐 사느냐’를 보면 ‘-냐’ 외에 ‘-으냐, 느냐’가 연결된 것을 알 수 있다. 문법 설명과 용례로 제시된 것이 좀 다르다고 하겠다.

경희대학교 교재는 다른 교재와 달리 문법 항목을 따라 두지 않고 표현 중심으로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느-’ 결합 구성을 확인하기 위해 경희대학교 교재인 <한국어 고급 1>, <한국어 고급 2>에 나오는 문법 관련 사항을 하나하나 검토하면서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 경우에 따라서는 형용사에만 연결되는 형태로 나오더라도 ‘-느-’ 결합 구성으로 보고 목록에 포함시킨 것도 있다. ‘-느-’ 결합 구성과 관련하여 자세한 설명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구성의 연결형을 확인하기도 어렵고 용법을 알기도 어려운 교재라 하겠다.

이 교재에 나타나는 ‘-느-’ 결합 구성을 관형사형 결합 구성과 종결형, 연결형 결합구성으로 나누고 다시 동사와 형용사에 연결되는 것, 동사에 연결되는 것으로 나누어 제시하는데 이 교재에 나오는 구성을 그대로 제시한다. ‘-(으)ㄴ’은 형용사 뒤에, ‘-는’은 동사 뒤에 연결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 (23) 관형사형 결합 구성

#### 가. 형용사/동사-관형사형

- (으)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 (으)ㄴ/는/(으)ㄴ 경우에(는),  
- (으)ㄴ/는/(으)ㄴ 듯(이), - (으)ㄴ/는/(으)ㄴ 듯하다,  
- (으)ㄴ/는/(으)ㄴ 듯싶다, - (으)ㄴ/는 반면(에), - (으)ㄴ/는 가운데,  
- (으)ㄴ/는 감이 있다, - (으)ㄴ/는 데, - (으)ㄴ/는/(으)ㄴ 바,  
- (으)ㄴ/는 탓, - (으)ㄴ/는 법이다, - (으)ㄴ 나머지

#### 나. 동사-관형사형

-는 수가 있다, -는 중, -는 통에

다른 교재와 마찬가지로 (23 나) ‘동사-관형사형’으로 분류한 것 중에서 ‘-는 중’ 구성은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는/-던’ 뒤에 쓰여”라는 활용 정보를 제시하고 있어 가능하다고 하겠지만 다른 것은 어렵다고 하겠다.

위의 구성 중에서 몇몇 구성을 중심으로 교재에서 제시하고 있는 예를

살펴보겠다.

- (24) 가. 그 사람은 우리 형제를 처음 본 듯이 데면데면하게 대했다.  
<경희 1, 91>  
나. 너무도 충격적인 사실을 접하고 발이 땅에 붙은 듯 한참 동안  
멍하게 서 있었다. <경희 1, 91>  
다. 빌리 씨에게 부탁하려다가 피곤한 듯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경희 1, 107>  
라. 앞에서 발표할 때 다른 사람이 수군거리면 비웃는 듯해서 기분이  
나쁩니다. <경희 1, 107>  
마. 요즘 위장이 나빠진 듯싶어. <경희 1, 107>
- (25) 가. 그 회사는 월급이 많은 반면 근무 시간이 길고 출장이 잦다는  
단점이 있다. <경희 1, 110>  
나. 최근 몇 년 동안 컴퓨터 하드웨어의 가격은 계속 떨어지는 반면  
소프트웨어의 가격은 크게 오르고 있다. <경희 1, 110>  
다. 백화점의 매출이 줄어든 반면에 대형 할인점의 매출이 크게  
늘어났다고 한다. <경희 1, 110>  
라. 어머니는 딸의 합격 소식을 듣고 너무 기쁜 나머지 눈물까지  
흘렸다. <경희 2, 32>  
마. 여름 휴가 때 돈을 너무 많이 쓴 나머지 생활비를 아껴 써야  
하는 형편이 되어 버렸다. <경희 2, 32>
- (26) 가. 박 선생이 우리 학교를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애쓴 것을 모르는  
바가 아니다. <경희 1, 121>  
나. 이곳은 자연 보호 구역인 바 취사를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1, 121>

‘듯(이), 듯하다, 듯싶다’ 앞에 관형사형이 연결된 예가 (24)의 예인데 ‘피곤한’은 형용사가 연결된 것이고 ‘비웃는’은 동사 현재형이 연결된 것이다. ‘본, 붙은, 나빠진’은 동사 과거형이 연결된 것이다. 이는 (25)도 비슷한데 형용사, 동사 현재형, 동사 과거형 뒤에 ‘반면(에), 나머지’가 연결된 예이다. (26)은 의존명사 ‘바’ 앞에 관형사형이 연결된 것인데 (26 나)의 ‘구역인 바’는 ‘-ㄴ바’의 잘못으로 보인다. 결국 여기에 나오는 문법 정보와 용례만으로는 관형사형 결합 구성에서 형용사에 연결되는지 동사 과거형에 연결되는지 알 수 없다.

종결형, 연결형 결합 구성은 좀 더 복잡하다. ‘-느-’라는 형태가 있는 경우는 ‘-느-’ 결합 구성으로 쉽게 분류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리 쉽지 않다. 밑에 나오는 ‘-다든지, -다지요?, -다면’ 등은 그 형태만 보면 ‘-느-’ 결합 구성이 아닌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는다든지, -는다지요?, -는다면’ 등 동사에 연결되는, 대응되는 구성이 있기 때문에 이들도 ‘-느-’ 결합 구성으로 분류하였다. 동사, 형용사에 연결되는 형태가 각각 있는 경우 이를 밝히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다.

(27) 종결형, 연결형 결합 구성

가. 형용사/동사-종결형, 연결형

- (으)니 - (으)니 해도 / -느니 -느니 해도, - (으)ㄴ/는가?,  
 - (으)ㄴ/는가 하면, -는걸요,  
 -다든지, -다지요?, -다면, -다나요?, 아무리 -다손 치더라도,  
 -다기보다 / - (이)라기보다

나. 동사-종결형, 연결형

-느니

위 목록에 나오는 구성 중에 몇몇 구성에 대해 살펴보겠다. 각 구성에 나오는 예를 보면서 그 구성의 특성을 잘 나타내고 있는지 볼 것이다.

(28) 가. 좋으니 안 좋으니 해도 구관이 명관이더라고요. <경희 1, 35>

나. 혼자 사는 게 속 편하다느니 결혼하면 고생이라느니 해도 결혼하면  
 다 행복해 하더라고요. <경희 1, 35>

다. 거기에서 사진도 찍었는걸요. <경희 1, 29>

라. 거의 매일 하는걸요. <경희 1, 29>

‘-(으)니 - (으)니 해도 / -느니 -느니 해도’의 예로 ‘좋으니, 편하다느니, 고생이라느니’가 나오는데 ‘좋으니’는 ‘-느니/-으니/-니’에서 받침 있는 형용사 뒤에 연결되는 것이다. 한편 ‘편하다느니, 고생이라느니’는 이와 달리 ‘-는다느니/-ㄴ다느니/-다느니/-라느니’에서 형용사 뒤와 ‘이다’ 뒤에 연결되는 것이다. ‘찍었는걸요, 하는걸요’의 ‘-는걸요’의 경우 동사 뒤에 연결되는 ‘-는걸요’만 나와서 동사에만 연결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실은 ‘-는걸/-은걸/-ㄴ걸’ 구성이 다 가능하고 받침 없는 동사 뒤에는 ‘-ㄴ걸’이 연결된다. 이 교재의 표제어만으로는 이런 사실을 알 수 없다.

다음 예는 형용사만 연결될 것처럼 보이는 구성에서 용례로 제시된 것 중에 동사가 있는 예인데 동사에 연결된 예를 중심으로 보이겠다.

(29) 가. 날이 흐리다든지 비가 온다든지 하는 날이면 할머니는 어김없이  
 다리가 쭈신다고 하셨다. <경희 2, 65>

나. 한국에서는 4월 5일에 나무 심는 행사를 한다지요? <경희 2, 74>

다. 그 어려운 일을 빌리 씨 혼자서 했다지요? <경희 2, 74>

라. 내일부터 새벽마다 달리기를 한다나요? <경희 1, 75>

마. 남자 친구한테 선물 받은 소중한 지갑이라나요? <경희 1, 75>

‘흐리다든지, 온다든지’는 ‘-다든지’의 예로 든 것인데 동사 ‘오다’ 뒤에 ‘-나다든지’ 형태로 연결되어 있다. ‘-다지요?’에 나오는 예인 ‘한다지요?, 했다지요?’는 동사 ‘하다’ 뒤에 ‘-나다지요’가, ‘-었-’ 뒤에 ‘-다지요’가 연결된 것이다. ‘-느-’ 결합 구성의 경우 연결되는 형태가 많고 복잡하기 때문에 이를 정확하게 밝히지 않으면 곤란한 경우가 많다. 목록과 용례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때는 더욱 그러하다 하겠다.

이화여자대학교 교재에 나오는 ‘-느-’ 결합 구성을 관형사형 결합 구성과 종결형, 연결형 결합 구성으로 나누어 제시하겠다. 이 교재에는 숙제책(Workbook)이 있는데 숙제책에서 몇몇 구성에 대하여 비교적 자세한 문법 설명을 하고 있다. 예를 들면, ‘-(으)ㄴ/는/(으)ㄴ 듯이’와 관련하여 동작동사 뒤에 연결되고 과거형, 현재형, 미래형에 결합되는 형태를 ‘가다, 먹다’를 예로 하여 제시하였다. 이러한 설명이 있으면 문법 항목을 공부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우선 관형사형 결합 구성과 관련되는 목록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30) 관형사형 결합 구성

가. 형용사/동사-관형사형

- (으)ㄴ/는/(으)ㄴ 듯이, - (으)ㄴ/는/(으)ㄴ 바, - (으)ㄴ/는 양,

- (으)ㄴ/는 데다가, - (으)ㄴ/는 탓, - (으)ㄴ/는/(으)ㄴ 정도

나. 동사-관형사형

-는 한

위의 구성 중 ‘-(으)ㄴ/는/(으)ㄴ 듯이’ 부분에는 자세한 연결 정보가 있었으나 다른 구성에는 연결 정보가 없는데 이들 구성에 나오는 예를 중심으로 하여 살펴보겠다.<sup>25)</sup>

(31) 가. 이 일을 통해 깨달은 바가 많습니다. <이화, 16>

나. 아까 두 사람이 서로 인사도 하지 않고 모르는 사람인 양 지나치는 거야. <이화, 41>

다. 민박은 값이 싼 데다가 한국 가족과 생활해 볼 수 있어서 좋아요. <이화, 54>

라. 요코 씨는 시험을 잘 본 데다가 수업에서 빠지지 않았거든요. <이화, 54>

마. 어제 술을 너무 마신 탓에 머리도 아프고 배도 아파서요. <이화, 55>

위의 예들은 연습문제를 할 때 참조하라고 제시한 예들이다. 이 교재는 이러한 예들을 제시한 후 해당되는 동사, 형용사 등을 주고 각 문법 사항을 이용하여 문장을 완성하게 하는 연습문제가 많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는’의 경우는 동사에 연결되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지만 ‘-은/-ㄴ’의 경우는 형용사, 동사 과거형, ‘이다’ 중에서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습문제 중에는 동사에 현재형인 ‘-는’이 연결되지 않고 과거형인 ‘-은/-ㄴ’만 가능한 것도 있었다. 연습문제를 풀면서 문법 사항을 익히게 하는 방식이 좋은 면도 있겠지만 역시 그 한계도 있다고 하겠다.

다음으로 종결형, 연결형 결합 구성에 대해 보겠다. 종결형, 연결형 결합 구성도 예를 제시하고 연습문제를 완성하게 하는 형식이 많은데 각 구성에 대한 자세한 문법 설명은 거의 없다.

(32) 종결형, 연결형 결합 구성

- (으)ㄴ/는지라, -(ㄴ/는)다기보다, -(ㄴ/는)다거나

각 구성에 나오는 예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33) 가. 새로 온 번사또는 포악하고 색을 밝히는지라 춘향이 뺨어난

미인이라는 소리를 듣고 춘향을 불러 오게 합니다. <이화, 20>

나. 준호도 나이가 나이인지라 정신을 차릴 때도 됐지요. <이화, 20>

다. ‘계모는 나쁘다’라는 것을 말해 준다기보다는 그만큼 계모의 역할은 어렵다는 것을 달리 표현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화, 82>

라. 맛이 없다기보다 제 입맛에는 안 맞아서요. <이화, 82>

마. 거실 바닥에 목재를 깔아 마루의 느낌을 준다거나 침실의 침대를 메트리스가 아닌 동양의 온돌 형식을 빌어 온돌 침대를 놓기도 한다.

<이화, 82>

바. 천천히 걷는다거나 맨손 체조 같은 가벼운 운동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화, 82>

‘-(으)ㄴ/는지라’와 관련되는 예들은 동사, ‘이다’의 예인데 연습문제에 나오는 것도 ‘이다, 없다’뿐이다. 형용사에 연결되는 예가 없는 것이다. ‘-(ㄴ/는)다기보다, -(ㄴ/는)다거나’는 그 형태를 보면 동사에 연결될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동사 현재형, 동사 과거형, ‘없다’에 연결된 예가 나온다. 연습문제에도 동사만 나오는데 문장에 따라 동사 현재형, 동사 과거형을 써야 하는 문제이다. 이러한 방식이 문법 표현을 연습하는 데는 유용할지 모르겠지만 그 문법 표현에 익숙하지 않을 때는

완성하기 힘들다고 하겠다.

지금까지 한국어 상급 교재에 나오는 ‘-느-’ 결합 구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느-’ 결합 구성을 체계적으로 제시한 교재는 드물었고 오히려 제시된 문법 사항이나 용례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았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재에서 문법 사항과 그 용례를 어떻게 제시할 것인가에 대하여 고민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 하겠다. 5장에서 이러한 내용과 관련하여 생각해 보려 한다.

### 5. ‘-느-’ 결합 구성과 한국어 교재

‘-느-’ 결합 구성은 앞에서 보았듯이 그 결합 구성이 복잡할 뿐만 아니라 형태가 많고 길어서 한국어 교재에서 그 구성을 정확하게 제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런 이유로 대부분의 한국어 상급 교재에서 대표형이나 간략하게 줄인 형식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다. ‘-느-’ 결합 구성을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제시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을 취하는 것이 좋을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3장에서 분류한 유형 중 몇 가지 유형만을 대상으로 하여 생각해 보겠다.

<유형 1A>와 관련해서 <표준국어대사전>에 활용 정보가 없는 경우는 관형사형어미 전체를 보여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다. 하지만 특정한 의존명사나 일반명사에 대하여 그 활용 정보가 나오는 경우나 연결되는 관형사형어미에 제약이 있는 경우는 그럴 필요가 없다. 관형사형어미가 연결되는 ‘-느-’ 결합 구성은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을 듯하다.<sup>26)</sup> 한국어 상급 교재에 나오는 구성을 중심으로 제시하겠는데 여기에서 제시하는 방식은 실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어떠한 방식으로 제시할 것인가는 더 연구해야 한다.<sup>27)</sup> (( )) 안에 각 결합 구성의 활용 정보를 제시하였다.

#### (34) <유형 1A> 결합 구성

##### 가. 관형사형어미 + ‘듯(이)’ 구성

((‘동사현재형-는, 동사과거형-은/ㄴ, 형용사-은/ㄴ’ 구성으로 쓰여))

여행을 떠나는 듯(이), 죽은 듯(이), 기분이 좋은 듯(이)

##### 나. 관형사형어미 + ‘한’ 구성

((동사, ‘있다, 없다’에 붙어))((-는 한’ 구성으로 쓰여))

계속 야구를 하는 한, 제 옆에 있는 한

동사 과거형과 형용사에 연결되는 형태가 같기 때문에 연결이 가능한지 아닌지를 밝힐 필요가 있는데 동사 과거형에 연결되지 않는 경우나 형용사에 연결되지 않는 경우는 밝힐 필요가 없다고 본다.

<유형 3>과 관련하여 ‘-느니 -느니’ 구성에 대해 살펴보겠다. 한국어

상급 교재에서는 ‘-느니 -느니’ 또는 ‘-니 -니’ 형식으로 제시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다음과 같이 표시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35) <유형 3> 결합 구성

가. ‘-느니 -느니’ 구성

((‘동사-느니 -느니’, ‘형용사-으니/니 -으니/니’ 구성으로 쓰여))

가느니 마느니, 적으니 많으니, 바쁘니 기니

나. ‘-는가?’ 유형

((‘동사-는가?’, ‘형용사-은가/ㄴ가?’ 구성으로 쓰여))

가는가?, 좋은가?, 바쁜가?

위에서는 동사, 형용사에 대한 정보만 제시하였는데 ‘-는가?’ 구성과 관련하여 ‘이다’나 ‘-었-, -겠-’ 뒤에 연결되는 형태를 제시할 수도 있다. 그럴 경우 어떠한 방식으로 제시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다음은 <유형 5>와 관련하여 생각해 보겠다. 한국어 상급 교재에는 이 유형에 속하는 구성이 많이 나온다.

(36) <유형 5> 결합 구성

가. ‘-는다고’ 구성

((‘동사-는다고/ㄴ다고’, ‘형용사-다고’, ‘이다-라고’ 구성으로 쓰여))

먹는다고, 사랑한다고, 예쁘다고, 학생이라고

나. ‘-는다느니’ 구성

((‘동사-는다느니/ㄴ다느니’, ‘형용사-다느니’, ‘이다-라느니’

구성으로 쓰여))

읽는다느니, 간다느니, 편하다느니, 교생이라느니

‘-는다고, -는다느니’ 구성의 경우 받침 있는 동사와 받침 없는 동사, 형용사, ‘이다’ 뒤에 연결되는 형태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이 구성의 활용 정보에서 이런 사항을 꼭 밝혀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이런 사항을 밝힌 한국어 상급 교재는 거의 없었다.

<유형 6>과 관련되는 결합 구성도 한국어 상급 교재에 많이 나오는데 좀 복잡할 수 있겠지만 간접인용과 관련되는 것을 하나의 문법 사항 안에서 전부 다루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일단 <유형 6>과 관련되는 활용 정보만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37) <유형 6> 결합 구성

가. ‘-느냐고’ 구성

((‘동사-느냐고’, ‘형용사-으냐고/냐고’ 구성으로 쓰여))

먹느냐고, 넓으냐고, 나쁘냐고  
 나. '-느냐면서' 구성  
 (('동사-느냐면서', '형용사-으냐면서/나면서' 구성으로 쓰여))  
 먹느냐면서, 많으냐면서, 예쁘냐면서

위에서는 동사, 형용사 뒤에 연결되는 형태만 제시했는데 '-었-', '-겠-' 뒤에 연결되는 형태를 제시할 수도 있다.

이상에서 '-느-' 결합 구성을 한국어 교재에서 제시할 때 결합 구성의 활용 정보를 어떻게 제시할 수 있을지 몇 가지 유형을 중심으로 그 형식을 모색해 보았다. 하지만 이는 '-느-' 결합 구성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하겠다. 우선 관형사형 결합 구성의 경우 관형사형어미 '-(으)르'와 '-던'에 대한 부분을 전혀 다루지 않았다. 관형사형어미 '-는, -(으)ㄴ, -(으)르, -던'의 결합 구성 전체를 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종결형, 연결형 결합 구성의 경우도 '있다, 이다'와 관련된 연결 정보를 거의 제시하지 않았고 '-었-', '-겠-'과 '-(으)시-'와의 연결 정보도 제시하지 않았다. 또한 '-느-' 결합 구성과 관련되는 '-더-' 결합 구성에 대해서도 전혀 보지 못했다.<sup>28)</sup> 한국어 교재에서 이들 결합 구성을 어떻게 제시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고민하고 풀어야 할 문제라고 하겠다.

## 6. 결론

본고는 한국어 상급 교재에 나타나는 '-느-' 결합 구성의 양상을 파악하고 한국어 교재에서 '-느-' 결합 구성을 어떠한 방식으로 제시해야 정확하고 효과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지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그러기 위하여 우선 '-느-' 결합 구성에 속하는 것에 어떠한 유형이 있는지 <표준국어대사전>에 나오는 표제어를 중심으로 결합 구성을 파악하고 분류하였다.

본고에서는 '-느-' 결합 구성을 크게 여섯 가지 유형으로 나누었다. <유형 1>은 동사 현재형과 '있다' 뒤에는 '-는', 받침 있는 동사 과거형과 받침 있는 형용사 뒤에는 '-은', 받침 없는 동사 과거형과 받침 없는 형용사, '이다' 뒤에는 '-ㄴ'이 연결되는 유형이다. 이 유형에 속하는 것은 관형사형어미 '-는/-은/-ㄴ'과 '-는걸/-은걸/-ㄴ걸' 등이다. <유형 2>는 받침 있는 동사 뒤에는 '-는다', 받침 없는 동사 뒤에는 '-니다', 형용사, '이다' 뒤에는 '-다'가 연결되는 유형이다. 이 유형에는 '-는다/-니다/-다'와 '-는다마는/-니다마는/-다마는' 등이 속한다.

<유형 3>은 동사, '있다, -었-, -겠-' 뒤에는 '-는데', 받침 있는 형용사 뒤에는 '-은데', 받침 없는 형용사와 '이다' 뒤에는 '-는데'가 연결되는 유형이다. '-는데/-은데/-는데'와 '-느니/-으니/-니'가 대표적인 구성이다.



<유형 4>는 동사 뒤에는 ‘-는구나’가 연결되고 형용사, ‘이다, -었-, -졌-’ 뒤에는 ‘-구나’가 연결되는 유형이다. 이 유형의 대표적인 구성은 ‘-는구나/-구나, -는군/-군’이다.

<유형 5>는 받침 있는 동사 뒤에는 ‘-는다고’, 받침 없는 동사 뒤에는 ‘-니다고’가 연결되고 형용사, ‘-었-, -졌-’ 뒤에는 ‘-다고’, ‘이다’ 뒤에는 ‘-라고’가 연결되는 유형이다. 이 유형에 속하는 대표적 구성은 ‘-는다고/-니다고/-다고/-라고’와 ‘-는대/-니다대/-대/-래’라고 할 수 있다.

<유형 6>은 동사와 ‘있다, -었-, -졌-’ 뒤에는 ‘-느냐’가 연결되고 받침 있는 형용사 뒤에는 ‘-으냐’, 받침 없는 형용사, ‘이다’ 뒤에는 ‘-냐’가 연결되는 유형이다. 이 유형의 대표적인 구성은 ‘-느냐/-으냐/-냐’와 ‘-느냐고/-으냐고/-냐고’이다.

본고에서 살펴본 대부분의 한국어 상급 교재에는 ‘-느-’ 결합 구성과 관련하여 부정확하거나 부적절한 문법 정보, 용례 등이 제시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다. 본고에서는 ‘-느-’ 결합 구성과 관련하여 한국어 교재에서 그 구성의 활용 정보를 어떻게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일지 생각해 보았다. 그러한 방법의 하나로 몇몇 형식을 중심으로 활용 정보를 나타내는 방식을 제시해 보았으나 부족한 점이 많았다. ‘-느-’ 결합 구성을 한국어 교재에서 어떻게 제시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지는 앞으로 좀 더 연구해야 할 문제라고 하겠다.

#### <註>

- 1) ‘-느-’라는 형태를 선어말어미로 설정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 특히 ‘-느-’라는 형태가 종결형, 연결형, 관형사형에서 다른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들의 분석과 관련해서 논란의 여지가 많은 것이다. 본고에서는 종결형, 연결형, 관형사형에서 ‘-느-’라는 형태가 나타나는 경우 ‘-느-’ 결합 구성으로 본다. 하지만 이들 구성의 분석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 2) 예를 들면, 간접인용 중 의문을 나타내는 경우 한국어 교재에서 문법 정보를 제시할 때 동사에는 ‘-느냐’가, 형용사에는 ‘-으냐/냐’가 연결되는 것으로 제시할 것 같지만 대부분의 한국어 교재에서는 동사, 형용사 상관없이 ‘-냐’만을 제시하고 있다.
- 3) <표준국어대사전>에 나오는 활용 정보에는 선어말어미 ‘-(으)시-’에 대한 정보도 있다. 본고에서는 ‘-(으)시-’와 관련해서는 필요한 경우에만 언급하겠는데 ‘-(으)시-’는 ‘-었-, -졌-’의 분포와 그 양상을 같이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차이를 보이는 것은 <유형 2>의 ‘-는다, -느니<sup>1</sup>, -느라고’ 구성과 <유형 4>의 ‘-는구나, -느니만큼’ 구성, <유형 5>의 ‘-는다고’ 구성이다.
- 4) 본고에서는 ‘느’라는 형태에만 주목한다. 동사와 형용사에 서로 다른 문법 형태가

연결되더라도 그 구성에 ‘느’라는 형태가 없는 경우는 제외하였다. 예를 들면,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받침 있는 용언, 받침 없는 용언에 연결되는 것으로 제시한 ‘-으니<sup>1</sup>/-니<sup>7</sup>, -으니까/-니까, -으니까는/-니까는, -은들/-들<sup>2</sup>, -은즉/-즉<sup>2</sup>, -으랴<sup>1</sup>/-랴<sup>9</sup>, -으라고<sup>1</sup>/-라고<sup>4</sup>, -으라고<sup>2</sup>/-라고<sup>5</sup>, -으랴/-랴’ 등은 제외하였다. 그리고 ‘느’라는 형태가 연결되는 결합 구성만을 살피기 위해 ‘노’라는 형태가 들어가는 구성과 ‘먹네, 작네’ 등에서 쓰이는 ‘-네’도 제외하였다.

- 5) ‘-느-<sup>1</sup>’은 시제상 ‘-었-, -겠-’과 대립하고 ‘-느-<sup>2</sup>’는 ‘-었-, -겠-’과 대립하지 않는다. ‘-겠-’은 시제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어 ‘-느-<sup>1</sup>’이 ‘-었-’과 ‘현재시제’와 ‘과거시제’로 대립한다고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관형사형어미 ‘-는’이나 평서형 종결어미 ‘-는다/-니다’ 등에서 ‘-느-’는 ‘-었-’과 대립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6) 동사 현재형, 동사 과거형, 형용사의 경우 ‘르을 제외한 받침 있는 것에 연결되는 경우’와 ‘받침 없는 것, 르받침인 것에 연결되는 경우’로 나누어 각각 ‘자음’, ‘모음’으로 표시하였다. ‘있다’의 경우 ‘있다, 없다, 계시다’의 대표형으로 ‘있다’만 제시하였고 ‘이다’의 경우 ‘이다, 아니다’의 대표형으로 ‘이다’를 제시하였다.
- 7) ‘있다’ 뒤에 연결되는 ‘-느-’ 결합 구성의 경우 <표준국어대사전>에 활용 정보가 없는 경우가 많다. 특히 간접인용 평서형인 ‘-는다고/-니다고/-다고/-라고’ 등의 활용 정보에 ‘있다’와 관련되는 기술이 없다.
- 8)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형태가 같고 문법 기능이 다른 표제어의 경우 어깨번호를 붙여 표시하였다. 하지만 본고는 표에서 각 유형의 대표형만을 제시하고 어깨번호를 따로 밝히지 않았다. 밑에서 각 유형에 대하여 자세하게 언급하면서 <표준국어대사전>에 나오는 표제어 항목 번호를 제시하고 설명할 것이다.
- 9) 표에서 빈칸은 ‘-느-’ 결합 구성으로 분류되는 형태가 없는 경우이다. 동사 과거형의 경우 ‘-은/-ㄴ’과 ‘-은걸/-ㄴ걸’로 대표되는 유형을 제외하면 ‘-느-’ 결합 구성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없음을 알 수 있다. 동사 과거형의 경우 대부분의 ‘-느-’ 결합 구성은 ‘-었-’이 연결되어 표시된다고 할 수 있다. 동사 과거형의 ‘-은걸/-ㄴ걸’과 선어말어미 ‘-었-’이 연결된 ‘-있는걸’의 경우는 시제상 겹친다고 하겠다.

한편 ‘있다’와 관련하여 <표준국어대사전>이나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 2>에서 활용 정보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 빈칸으로 두었는데,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 2>를 일본어로 번역한 책에서는 형용사 부분에서 ‘있다, 없다’를 포함한다는 연결 정보가 나온다. 김수태(2005; 42-43)에서는 김차균(1990)을 인용하면서 ‘있다’의 경우 ‘거주하다, 머물다’의 의미를 가지면 ‘-다’가 아니라 ‘-는다’가 실현된다고 하였다. 이런 이유로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있다’와 관련된 활용 정보를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 10) 선어말어미 ‘-었-’과 ‘-겠-’은 ‘-느-’ 결합 구성에서 거의 동일한 활용 정보로 표시되었다. 유일하게 차이를 보인 것이 관형사형어미 ‘-는’과 관련된 활용

정보이다. ‘-었-’은 ‘-느-’와 ‘과거시제’, ‘현재시제’로 대립을 보이지만 ‘-겠-’은 ‘추측’이나 ‘의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시제와 직접 관련이 없기 때문에 ‘-느-’와 대립을 보이지 않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11)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 2>에서는 ‘-는걸’은 동사, ‘-은걸/-느걸’은 형용사에 연결되는 것으로 활용 정보를 제시하고 있지만 이 유형의 ‘-는바/-은바/-느바, -는지고/-은지고/-느지고, -는지라/-은지라/-느지라’에 대해서는 표제어 항목으로 설정하지 않았다.
- 12) <2A>의 ‘-는다<sup>1</sup>/-느다<sup>1</sup>’는 동사 현재형에 사용되는 형태이고 ‘-는-<sup>2</sup>/-느-<sup>3</sup>’은 종결어미와 결합할 때의 형태인데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독립 표제어로 설정해 제시한 것이다. ‘-는다<sup>2</sup>/-느다<sup>2</sup>’는 동사 의문종결형에 사용되는 형태이다.
- 13) 각 표제어의 어깨번호는 각각의 책에 나오는 어깨번호를 그대로 쓴다.
- 14) ‘-느니<sup>2</sup>’와 관련하여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느니<sup>2</sup>’의 참고 어휘로 ‘-으니<sup>4</sup>’를 제시했는데 이는 ‘-으니<sup>2</sup>’의 잘못이다.
- 15)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는구만’은 ‘-는구먼’으로 가라고 화살표로 표시하고 있다. 하지만 ‘-는구먼’의 설명에서는 ‘-는군’의 본말이라는 것만 나온다.
- 16) 이 유형에 나오는 ‘-라고’ 등에 대한 <표준국어대사전>의 활용 정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다, 아니다, -으시-, -더-, -으리-’ 뒤에 연결되는 것과 ‘받침 없는 동사, ㄹ받침인 동사, -으시-’ 뒤에 연결되는 것이다. 첫 번째 것의 관련어는 ‘-는다고/-느다고/-다고’로 ‘-느-’ 결합 구성과 관련되는 것이고 두 번째 것의 관련어는 ‘-으라고’로 ‘받침 있는 동사’ 뒤에 연결되는 것이다. 두 번째 것은 본고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제외하였다.
- 17) ‘-는다고<sup>1</sup>’ 유형은 까닭이나 근거로 들을 나타내는 연결어미이고 ‘-는다고<sup>2</sup>’ 유형은 자신의 생각을 강조하거나 의문과 관련되는 종결어미이다. ‘-는다고<sup>3</sup>’ 유형은 간접인용의 평서형어미이다. ‘-는다니<sup>1</sup>’ 유형은 해체의 평서형어미이고 ‘-는다니<sup>2</sup>’ 유형은 해라체의 의문형어미이다. 각각 문법적 기능이 다르다.
- 18) ‘-느냐고<sup>1</sup>’은 거듭 물음이나 반문을 나타내는 종결어미이고 ‘-느냐고<sup>2</sup>’는 간접인용의 의문형어미이다.
- 19) 예를 제시할 때는 다음 방식으로 제시한다. 예를 들면, 예가 서울대학교 교재 89쪽에 나올 때는 <서울, 89>로 표시한다.
- 20) 박제연(2009; 167)에서는 고영근(1970)에 나오는 관형사형어미와 관련되는 부분을 인용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한국어 교재를 만들 때 이러한 정보를 참조하여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주 22) 일찍이 고영근(1970)에서는 형식명사를 분류하면서 선행요소에 따라 ‘-은’, ‘-는’과만 결합되는 것(김, 때문, 체), ‘-는’과만 결합하는 것(동, 말, 말씀, 바람, 풍, 품), ‘-은’과만 결합하는 것(간, 지, 채, 폭), ‘-을’과만 결합하는 것(나름, 나위, 녀, 따름, 리, 법, 수) 등으로 나눈 바 있다.
- 21) 연세대학교 상급 교재는 <연세 한국어 5>와 <연세 한국어 6>으로 구성되는데 관형사형 결합 구성은 대부분 <연세 한국어 6>에 나온다. 즉 관형사형 결합 구성

- 15 개 중 12 개가 <연세 한국어 6>에 나오는 것이다. 이 교재를 편찬한 사람들이 관형사형 결합 구성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렇게 한 듯하다.
- 22) 종결형, 연결형 결합 구성의 경우 <연세 한국어 5>에 4 개, <연세 한국어 6>에 7 개나 나오는데 역시 이러한 구성을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23) ‘-나/은가/ㄴ가 보다’ 구성은 동사 뒤에는 ‘-나’가, 형용사 뒤에는 ‘-은가/ㄴ가’가 연결되기 때문에 ‘-느-’ 결합 구성으로 보기 어렵다. 이러한 구성이 있음을 보이기 위해 여기서만 제시하고 다른 상급 교재에 나오는 것은 제외하였다.
- 24) 고려대학교 상급 교재도 <재미있는 한국어 5>, <재미있는 한국어 6>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관형사형 결합 구성은 모두 <재미있는 한국어 5>에, 종결형, 연결형 결합 구성은 모두 <재미있는 한국어 6>에 나온다. 관형사형 결합 구성보다 종결형, 연결형 결합 구성이 어렵다고 판단한 듯하다.
- 25) 이화여자대학교 교재 중 숙제책(Workbook)에 나오는 예를 제시하였다.
- 26) 본고는 ‘-느-’ 결합 구성만 고찰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형사형어미 ‘-(으)ㄴ’, ‘-던’이나 ‘-(으)ㄴ-’ 결합 구성, ‘-더-’ 결합 구성에 대해서는 제시하지 않았다. ‘-(으)ㄴ-’ 결합 구성, ‘-더-’ 결합 구성과 관련되는 형태까지 포함한다면 그 기술이 더 길어질 것이다.
- 27) 용례를 제시할 때는 <표준국어대사전>,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 2>와 한국어 상급 교재에 나오는 예를 바탕으로 제시하였다.
- 28) <표준국어대사전>에는 ‘-느-’ 결합 구성과 관련되는 ‘-더-’ 결합 구성이 참고 어휘로 제시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참고 어휘로 제시된 것을 각 유형별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유형 1> ‘-던<sup>2</sup>, -던걸, -던바’, <유형 3> ‘-던데, -던지’, <유형 4A> ‘-더구나<sup>2</sup>, -더군’, <유형 6> ‘-더냐, -더냐고’ 등이다. ‘-더-’의 연결 정보가 ‘-(으)시-’와 동일하게 제시되는 경우는 <유형 4B> ‘-니만큼’, <유형 5> ‘-라고<sup>4</sup>, -라나’ 등이다. ‘-더-’ 결합 구성과 관련하여 참고 어휘나 연결 정보가 없는 것은 <유형 2>에 한정된다.

#### <參考文獻>

##### 논문

- 강현화(2007), 「한국어 교재의 문형유형 분석 - 문형 등급화를 위해」, 『한국어교육』 18.
- 고영근(1970), 「현대국어의 준자립형식에 대한 연구 : 형식명사를 중심으로」, 『어학연구』 6:1.
- 고영근·구본관(2008), 『우리말 문법론』, 집문당.
- 권용경(2012), 「한국어 상급 교재에서의 관형사형어미 ‘-(으)ㄴ’ 결합 구성에 대하여」, 『韓國語學年報』 8.
- 김수태(2005), 「‘-느-’와 종결어미의 융합」, 『우리말연구』 16.
- 김차균(1990), 『우리말 시제와 상의 연구』, 태학사.

- 남기심·고영근(2013), 『표준국어문법론 제 3 판』, 탑출판사.
- 문숙영(2009), 「현대국어 '-느-'의 범주와 형용사와의 결합 제약」, 『한국어학』 45.
- 박재연(2009), 「한국어 관형사형 어미의 의미 기능과 그 문법 범주」, 『한국어학』 43.
- 서정수(2006), 『국어문법 수정판』, 도서출판 한세본.
- 이익섭(2005), 『한국어 문법』,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이해영(2001), 「학습자 중심 수업을 위한 교재 분석」, 『한국어교육』 12.
- 진대연(1999), 「한국어 교재 분석의 기준: 연구와 적용」, 『국어교육학연구』 9.
- 허철구(2005), 「'-느-' 통합형 어미 기술에 대한 시론」, 『사립어문연구』 15.

#### 한국어 교재 및 사전류

- 경희대학교 국제교육원 한국어교육부(2007), 『한국어고급 I』, 경희대학교 출판국.
- 경희대학교 국제교육원 한국어교육부(2007), 『한국어고급 II』, 경희대학교 출판국.
- 고려대학교 한국어문화교육센터(2011), 『재미있는 한국어 5』, 교보문고.
- 고려대학교 한국어문화교육센터(2011), 『재미있는 한국어 6』, 교보문고.
- 국립국어원(1999), 『표준국어대사전』, 두산동아.
- 국립국어원(2005),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 2』, 커뮤니케이션북스.
-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2003), 『한국어 4』, 문진미디어.
-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편(2011), 『연세대학교 한국어 5』, 연세대학교 출판부.
-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편(2011), 『연세대학교 한국어 6』, 연세대학교 출판부.
- 이화여자대학교 언어교육원(2002), 『말이 트이는 한국어IV(Workbook)』,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韓国語上級教材における‘-느-’結合構成について

權容環

神田外語大学

本稿においては、‘-느-’の結合構成を大きく6種類のタイプへと分類した。〈タイプ1〉は、動詞の現在形と‘있다’の後ろには‘-는’, 終声字のある動詞の過去形と終声字のある形容詞の後ろには‘-은’, 終声字のない動詞の過去形と終声字のない形容詞と‘이다’の後ろには‘-ㄴ’が連結するタイプである。〈タイプ2〉は、終声字のある動詞の後ろには‘-는다’, 終声字のない動詞の後ろには‘-는다’, 形容詞と‘이다’の後ろには‘-다’が連結するタイプである。〈タイプ3〉は、動詞と‘있다, -았-, -였-’の後ろには‘-는데’, 終声字のある形容詞の後には‘-은데’, 終声字のない形容詞と‘이다’の後ろには‘-ㄴ데’が連結するタイプである。

〈タイプ4〉は、動詞の後ろには‘-는구나’が連結し、形容詞と‘이다, -았-, -였-’の後ろには‘-구나’が連結するタイプである。〈タイプ5〉は、終声字のある動詞の後ろには‘-는다고’, 終声字のない動詞の後ろには‘-ㄴ다고’, 形容詞と‘-았-, -였-’の後ろには‘-다고’, ‘이다’の後ろには‘-라고’が連結するタイプである。〈タイプ6〉は、動詞と‘있다, -았-, -였-’の後には‘-느냐’, 終声字のある形容詞の後ろには‘-으냐’, 終声字のない形容詞と‘이다’の後ろには‘-냐’が連結するタイプである。

本稿において調べた大部分の韓国語上級教材には、‘-느-’の結合構成と関連し、不正確もしくは不適切な文法情報、用例などが提示されている場合が多かった。本稿においては、‘-느-’の結合構成と関連し、韓国語教材においてその構成の活用情報をどのように提示するのが効果的なのか考えてみた。そのような方法の一つとして、いくつかの形式を中心にして活用情報を表す方式を提示してみたが、不足している点が多かった。‘-느-’の結合構成を韓国語教材にどのように提示するのがより効果的なかについては、今後もう少し研究しなければならない問題だと言えよう。